

 보 도 자 료 2013.6.20.(목)	행사문의	박 연 선 (02-3156-7040)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6.20.(목)
	※ 총9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개발과정에서의 여성발전 경험사례 및 학술적 발전방안 공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개발과정에서
여성발전경험” 주제로 제1차 한·아세안 젠더와 개발 국제컨퍼런스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6월 27일(목) ~ 28(금) 양일에 걸쳐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개발과정에서 여성발전 경험”을 주제로 제1차 한·아세안 젠더와 개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외교부가 후원한다.
- 이번 행사는 2013년 1월 아세안의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여 개최한 싱가포르 워크숍의 후속행사로, 아세안 각국 여성들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내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싱가포르 워크숍에서는 젠더와 개발 이론 및 실재를 통합한 젠더관련 커리큘럼 개발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가치와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커리큘럼의 기획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추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젠더와 개발 개념이 교육 커리큘럼, 나아가 정부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금숙 원장은 “한국과 아세안이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발전 경험이라는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4년 제2차 한-아세안 사업 발전에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대학에서 여성정책 관련 강의를 하는 교수 및 강사, 아세안 사무국(아세안여성위원회, 아세안 교육분야고위급회의, 아세안 대학네트워크) 관계자, 한국 여성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6월 27일(목)에는 DAWN의 전 운영위원이자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사회개발학과 교수인 비비엔 테일러가 “젠더, 개발과 글로벌라이제이션-커리큘럼 전환을 위한 주요 이슈들” 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전문가들의 “아세안 국가개발과정에서의 여성발전경험 사례” 와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라오스와 싱가포르의 대표단은 6월 28일 오후 세션에 합류하여,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 6월 28일(금)에는 “젠더와 개발(GAD) 커리큘럼 현황과 전망” 을 주제로 관련 연구진들의 발표가 진행되며, 2013 싱가포르 워크숍 후속회의로 “젠더와 개발(GAD)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 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에서는 2012년부터 외교부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 10개국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1. 주요 해외초청자 프로필

붙임 2. 행사 개요

붙임 1 주요 해외초청자 프로필 및 발표요약

[기조강연]

비비엔 테일러(Vivienne Taylor)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사회개발학과 교수

-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University of Cape Town) 사회개발학과(Dept. of Social Development) 교수 및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회정책, 사회·경제 개발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30년 이상 국내 및 국제개발 관련 활동을 해 오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양성평등위원회(헌법기관)의 젠더위원(Gender Commissioner)을 역임하였으며, 아마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의장이었던 UN 내 위원회인 글로벌인간안보위원회(a global Commission on Human Security)에서 활동하였음.
-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의 국가계획위원(National Planning Commissioner)으로 활동하고 있음.
- 최근 저서로는 “Marketisation of governance: Critical feminist perspectives from the South(2000)” 가 있음.



비비엔 테일러와 DAWN

비비엔 테일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 발전 대안(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이하 DAWN)에서 과거 운영위원회위원(Steering Committee Members)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특히 정치 재조정 및 사회 변혁을 위한 연구 코디네이터(Research Coordinator for Political Restructuring & Social Transformation)를 담당하였다.

DAWN은 1975년 멕시코 여성 대회 이후, 제3세계 여성들이 여성개발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시기에 제 3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운동가, 학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대표적인 네트워크이다(www.dawnnet.org). 경제 및 젠더 정의(economic and gender justice), 지속적·민주적 발전(sustainable and democratic development)을 위해 글로벌 페미니스트 연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층과 소외계층 여성의 생계·생활 수준·권리 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이슈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연구, 분석 및 권익옹호(advocacy)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과학 및 환경이슈를 뛰어넘어 자원 접근에 대한 불평등 및 오염에 대한 책임 등 환경 및 기후 정의(Gender, Economics and Climate Justice, GEEJ)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평등한 발전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DAWN은 연간보고서 발간을 통해 DAWN에서 시행한 연구, 분석 및 활동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대안(feminist alternatives)을 발전시키고, 글로벌·지역·국가 수준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을 목표로 시민사회 내 여성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 과정 변형에서의 문제 : 젠더, 개발, 그리고 세계화

이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사회 정의와 변화를 향한 폭 넓은 의제의 일환으로 젠더와 개발의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적시에 호출하는 자리이다.

이 컨퍼런스는 또한 젠더와 개발의 경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정면에 놓고 젠더와 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와 개발 사이의 관계는 실제로 중요하며 복잡하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젠더, 개발,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 사이에 여러 개의 교차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효과는 모호해진다. 지역적 프로세스와 개발, 그리고 이들의 교차로에 있어서 성별간 분리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 점은 정책과 여성이 몸소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뚜렷한 모순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 몇 개를 강조하고, 여기에 사회변화를 향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젠더와 개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도전을 연계시킨다. 유용한 출발점은 어떠한 프로세스가 변화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여성과 젠더적 정당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성 평등은 여러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고 성 평등의 언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실제적 경험은 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로 옮겨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가 및 국제적 과정에서 법령의 실행 및 국제 조약의 비준이 여성들에게 권리와 정당성 그리고 표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법적 권리와 합법적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젠더와 개발 이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정부 내 개인들의 역량 강화와 지식,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들간의 중요한 매개체를 제공할 것이다.

[세션 1-1/2-2: 발표자]

찬리스 닌(Chanrith Ngin)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교수

-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에 2005년부터 “개발학 대학원 프로그램(Graduate Program in Development Studies)” 설치를 추진(founding director)하고 있음.
- 일본 나고야 대학교(Nagoya University, Japan)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 취득. 관심 연구분야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ary development), 시민사회, 분권화, 이주, 토지관련이슈(land issues), 천연자원관리임. 개발학 개론, 지역개발 이론 및 실천 등 개발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음. 현재, 메콩연구자문위원회(MIRAC) 위원임.



캄보디아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

성인지 지수상으로의 진전은 있었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성 평등에 관해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성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 활동에서 여성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 특히 무급 가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공식 부문의 노동력에서도 여성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및 관리직에는 현저히 많은 수의 남성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농업분야에서 여성은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식, 기술 및 토지 소유권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 등록비율은 증가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초기에 중퇴함으로써 고등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아들의 교육에 관한 뿌리깊은 제약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 남아선호, 학교까지 먼 통학 거리, 부족한 학교 시설 및 여교사의 수 같은 요인들을 포함한다. 여성의 모성보건은 의료시설의 부족,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의 제한된 접근성, 비위생적인 전통적 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하다. 정치영역을 보면 마을 및 공동체 관청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의 최고위직은 여전히 남성이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 발전에서 급격히 상승한 여성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해서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여성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이 여성을 위한 보다 나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션 1-2: 발표자]

오로라 자바테 드 디오스 (Aurora Javate-De Dios)

필리핀 미리암대학 여성과젠더연구소(WAGI) 소장

- 현재 미리암 대학(Miriam College)의 여성과젠더연구소(Women and Gender Institute, WAGI) 소장이며, ASEAN 여성 및 아동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위원회(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필리핀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 젠더 전문가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필리핀 여성연구회의 초대 대표였으며, 필리핀 전국의 대학에 젠더 연구를 소개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필리핀 여성 역할에 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의 의장으로서, ‘반인신매매법(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반대법’ 등 두 가지 중요한 여성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공헌하였음.



성인지적 및 젠더 통합적 개발을 향하여: 필리핀 경험 중심으로

필리핀은 양성평등 증진에 관해서 진보적인 국가로 여겨진다. UNDP,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평가지수에서 상위 10위 내에 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 역대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직 여성들의 활약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필리핀은 인간개발 지수에서는 187개국에서 11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만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던 반면, 인구 전체를 고려하면 뒤쳐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 강연은 젠더, 권리, 및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필리핀 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가지 핵심 분석 영역은 거버넌스, 여성의 인권, 경제권 및 경제력 강화이다. 즉, 첫째로 세가지 핵심영역에서 젠더 관점이 포함된 필리핀 정부의 포괄적인 개발 의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석할 것이다. 둘째로, 필리핀 여성들이 마주한 제약과 난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세가지 핵심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세션 2-1: 발표자]

분디쓰 프라툼반(Bundith Prathoumvanh)

국회의원, 라오여성연맹 부대표, ASEAN여성위원회(ACW) 의장(라오스)

- 현재 국회의원(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라오여성연맹(Lao Women's Union) 부대표(vice-president), ASEAN여성위원회(ASEAN Committee on Women, ACW) 의장(라오스)으로 활동 중임.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발전을 위한 라오 국가 위원회(Lao National 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Lao NCAW)의 부위원장(vice-president)이자 모자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other and Children, NCMC)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
- 1996년부터 2006년에는 라오 여성연맹(Lao Women's Union)의 개발부(Departement of Development) 국장 및 젠더자원정보 및 개발센터(Gender Resourc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er, Grid)의 소장(director)을 역임하였음.



아세안여성위원회(ACW)의 워크플랜(2011-2015)

2009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 8회 아세안여성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워크플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고려하여 2011-2015년에 걸친 새로운 워크플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아세안여성위원회의 새로운 2011-2015년 워크플랜은 최근 조직적인 요소가 도입된 새로운 아세안을 맥락화 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주요 성과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성과분야 1은 인간 개발이며 이는 마이크로 기업을 위한 기준이 서비스 전달이나 시장으로의 접근, 사회 보장 등과 상승작용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성과분야 2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이다. 이는 MDG달성을 위한 아세안 로드맵 이행에 젠더관점이 주류화, ASEAN 지역의 소액금융 기관의 네트워킹 및 협력, 자원 및 서비스 등으로 여성의 동등한 접근성 증진을 하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성과분야 3은 사회정의 및 권리이다. 본 분야에서는 아세안 지역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성별 분리통계 자료의 지속적 증가, 모든 분야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여성의 목소리 및 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성과분야 4는 기타 사회-문화적 부분에서 부문별 협력의 젠더 주류화이다. 총 4가지-환경적 지속 가능성 보장, 숙련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HIV/AIDS 위험성과 영향력, 젠더인지교육-로 나누어 다루게 된다.

[세션 2-2: 발표자]

황바 띵(Hoang Ba Thinh)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젠더와 가족학과 부교수, 학과장

- 현재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Hanoi campus), 인문사회과학대(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젠더와 가족학과(Department of Gender and Family) 부교수이자 학과장임.
- 젠더 · 인구 · 환경 · 사회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Gender, Population, Environment and Social Affairs)의 소장파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내 정치관리위원회(Political Management Committee)의 부위원장(vice-president)을 역임하고 있음.
- 2001년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주, 도시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영역의 젠더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젠더와 개발” 교과서 집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음(젠더와 개발에 대한 자문).



베트남 대학의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소개

1. **대학의 젠더 교육:**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여성학 및 젠더와 개발에 관한 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하노이 국립대학교는 1993-1994 학년도에 젠더 연구/젠더의 사회학 교육을 시작했으며, 수업교재로는 “젠더의 사회학”을 사용했다. 이 교재는 대학에서 젠더와 개발이나 젠더의 사회학을 공부하는 교수 및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참고 교재라고 할 수 있으며, 젠더와 개발 관련 주제로 10개의 대학원 수준 교육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대학의 젠더와 개발 교육의 효과성:** 젠더와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랜 공부, 또는 정부기관, UN, NGO 등에 자문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킨다. 또한 대학교수들은 베트남의 젠더 연구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 젠더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3. **대학 젠더 교육의 어려움과 한계:** 첫째로, 현재 지역별로 젠더와 개발을 가르치는 대학기관들의 수에 차이가 있다. 40개의 북부지방의 대학교 중 23개의 학교, 즉 57.5%의 학교가 젠더와 개발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 남부지방에 위치한 40개의 대학교 중에서는 17개 대학, 즉 42.5% 만이 젠더와 개발을 가르친다. 두 번째 문제는 젠더 교육이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또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생각해볼 문제:** 베트남의 대학들은 지난 20년간 젠더와 개발 교육을 진행하며 교수진, 교과 과정 및 참고 자료의 질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젠더와 개발 교육이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인류학 등 많은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젠더와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토론]

까말 마마트(Kamal Mamat)

아세안 사무국 교육·청년·훈련과 선임사무관(Senior Officer)

- 현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사회·문화부(Socio-Cultural Directorate)의 교육·청년·훈련과(Education, Youth and Training Division)의 선임사무관(senior officer)임.
- 정책·기술 자문 제공 및 교육·청년·문화·정보부를 포함한 아세안의 부처별(sectoral)/ 범부처별(cross-sectoral bodies) 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세안 커리큘럼 소스북(ASEAN Curriculum Sourcebook)을 개발하는 위원회(Working Committee)에 속해있으며, 아세안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ASEAN Youth Volunteer Program, AYVP) 등의 운영위원회 및 ASEAN 사무국 내 태스크포스(Steering Committee and Task Force)의 일원으로 활동 중임.



붙임 2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차 한·아세안 젠더와 개발 국제컨퍼런스]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개발과정에서 여성 발전 경험
- 일시·장소 : 2013년 6월 27일(목),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2층)
2013년 6월 28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2층)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한·아세안 협력기금·외교통상부
- 참가자: 아세안 10개국 내 젠더관련 대학 교수 및 강사,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여성위원회 등 14명, 한국 여성정책 전문가 10명 등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 프로그램

○ 6월 27일(목),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2F)

09:00 ~ 09:30	등 록
09:30 ~ 09:45	개 회 식
	사회: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개회선언 및 귀빈소개
	개회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환영사: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축 사: H.E. Dato Haji Harun HAJI ISMAIL 주한 브루나이 대사
09:45 ~ 10:00	기념사진
10:00 ~ 10:30	기조강연: 젠더, 개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커리큘럼 전환을 위한 주요 이슈들 Vivienne Taylor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교수
10:30 ~ 10:40	휴 식
10:40 ~ 12:00	세션 1-1: 아세안 국가개발과정에서의 여성발전경험사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회: Maithree Wickramasinghe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교수 Hairuni Mohamed Ali Maricar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교 교수 Chanrith Ngin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교수 Myra Diarsi 인도네시아 여성연구소(WRI) 선임자문위원 Rashidah Shuib 말레이시아과학대학 교수
12:00 ~ 12:30	토 론
12:30 ~ 14:00	오 찬
14:00 ~ 15:20	세션 1-2: 아세안 국가개발과정에서의 여성발전경험사례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사회: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ay May Pyone 미얀마 NGO 젠더그룹 대표 Aurora Javate-De Dios 필리핀 미리암대학 여성과젠더연구소(WAGI) 소장 Amara Soonthornhdhada 태국 마히돌대학교 부교수 Le Thi Quy 베트남 젠더와개발연구소(INGAD) 소장
15:20 ~ 15:50	토 론
15:50 ~ 16:10	휴 식
16:10 ~ 17:30	세션 1-3 :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 사회: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정책 R&D 및 훈련기구 설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D) 사례 정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농촌개발과정 여성 참여사례: 새마을 부녀회 이영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제개발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한국여성의전화 설립과 운영사례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90년대 한국여성정치교육의 성과와 교훈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17:30 ~ 18:00	토 론
18:00 ~ 18:10	폐 회
18:30 ~ 20:00	환영만찬(초청자에 한함)

○ 6월 28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2층)

10:00 ~ 11:00	<p>세션 2-1: “젠더와 개발(GAD)” 커리큘럼 현황과 전망 사회: Vivienne Taylor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교수 한국과 아세안의 GAD 커리큘럼 분석과 시사점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GAD 커리큘럼을 넘어 - 젠더 통합 전략 Maithree Wickramasinghe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교수 아세안여성위원회(ACW)의 워크플랜(2011-2015) Bundith Prathoumvanh 아세안여성위원회(ACW) 의장, 라오스</p>
11:00 ~ 11:30	<p>토론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형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량개발기획팀장</p>
11:30 ~ 12:00	종합토론
12:00 ~ 13:30	오찬
13:30 ~ 15:50	<p>세션 2-2 : 2013 싱가포르 워크숍 후속회의 - GAD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 사회: 조혜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캄보디아 대학의 젠더 교육 Chanrith Ngin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교수 베트남 대학의 GAD 커리큘럼 운영 사례 Hoang Ba Thinh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부교수</p> <p>토론 Aurora Javate-De Dios 필리핀 미리암대학 여성과젠더연구소(WAGI) 소장 Kamal Mamat 아세안 사무국 교육·청년·훈련부 선임사무관 Bundith Prathoumvanh 아세안여성위원회(ACW) 의장, 라오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p>
15:50 ~ 16:00	폐회
16:00 ~ 18:00	문화탐방
18:00 ~ 20:00	만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